

##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7.9.5



# 1 기후기술 동향

##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UNFC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FCCC, '17.11 COP23 협상 의제 발표</li> <li>- '17.08.25 UNFCCC는 '17.11.06-17기간 독일 본에서 개최될 COP23*, SBSTA37**, SBI47***의 협상 의제들을 발표</li> <li>- SBI 회의에서는 특히, 각국별로 상이한 NDC에 대해서 공통적 추진일정 개발, 공동 등록부 사용을 위한 방식 및 절차 개발,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 의제를 논의</li> <li>- SBSTA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기술프레임워크 개발, 6조 시장메커니즘 관련 의제, 공공 자원의 활용 및 회계 절차에 관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li> <li>- COP 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과 CMA**** 출범, 기술개발 및 이전 지원,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역량 강화, 자원 등에 관한 의제를 다룰 예정</li> </ul> <p style="font-size: small;">*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이행부속기구회의(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 파리협정당사국총회(CMA: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purple;">(IISD, 8/31)</p>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차 CTCN 이사회 개최</li> <li>- 일시 : 2017.08.29.(화) ~ 31(목)</li> <li>- 장소 : UN City 덴마크 코펜하겐</li> </ul>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CTCN, 8/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기관 총 350개 ('17.9.1 현재)</li> <li>- 6개 기관 가입승인</li> </ul>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CTCN, 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회원기관 총 44개 ('17.9.1 현재)</li> <li>- (주) 에스엘글로벌 가입</li> </ul>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CTCN, 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DE 총 158개 ('17.9.1 현재)</li> <li>- 동티모르 NDE(환경부) 선정</li> </ul>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CTCN, 8/4)</p>

	<p>○ CTCN/Practical Action 웨비나, 「에너지 재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17.9.6, 15:00~16:30 (CEST)</li> <li>- 주 최: Practical Action Consulting Limited*</li> <li>- 주요내용: 빈곤 지역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및 재정 지원 전략 등</li> </ul> <p>* 영국에 소재한 비영리 컨설팅 회사로 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빈곤 퇴치 연구</p> <p style="text-align: right;">(CTCN, 9/1) (Registration, 9/1)</p>
	<p>○ CTCN-GCF,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지원 확대」 공동 이니셔티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내용: GCF 능력배양 프로그램* 일환으로 타당성 연구 및 평가, 주요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진행, NDA, NDE 초청 지역 포럼 공동 개최</li> </ul> <p>* 가나, 미얀마, 통가</p> <p style="text-align: right;">(CTCN, 9/1)</p>
	<p>○ CTCN 캐리비안(Caribbean) 지역 포럼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장소: '17.8.24~25 / 자메이카 킹스톤</li> <li>- 주요내용: CTCN 활동 정보 공유, 국가별 GCF와의 협업 및 TA 성공 사례 경험 공유, 기술-재정 연계, 기후기술 제안서 작성을 위한 NDE와 NDA 협업 강화, 남남 협력 확대 등</li> </ul> <p style="text-align: right;">(CTCN, 9/1)</p>

##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과기부	<p>○ 과기정통부, 「기후기술-재정 연계 공동 워크숍」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31일 개최된 본 워크숍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메커니즘의 국가별 창구인 과기정통부와 재정메커니즘의 국가별창구인 기재부, 환경부가 공동 주관</li> <li>-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및 사업화를 위한 국내 기후기술 사업화 및 재원담당기관 간 효율적 협력방안 논의</li> </ul> <p style="text-align: right;">(헬로티, 8/31)</p>
	농어촌공사	<p>○ 농어촌공사, 이란에 가뭄·수해 등 기후변화대응 물관리 기술 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어촌공사는 257만 달러 규모의 이란 쿠제스탄주 수전력청에 ICT기반 스마트물관리시스템 (SWMS)시범사업을 수주</li> <li>- 이란은 본 기술을 활용하여 쿠제스탄주 일원의 수자원 배분 및 홍수에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li> <li>- 물관리분야 국내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하여, 해외시장진출 지원 (전업농신문, 8/31)</li> </ul>

국외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보-한전, 기후·에너지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이전 설명회 공동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9일 한국전력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청정발전, 차세대 송변전, 스마트 배전 등 원천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이전 설명회’를 공동 개최</li> <li>- 본 설명회는 유망기술 개발자와 실제 수요자에게 기술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기보의 기술금융 상담 기회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절감을 지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CNB 저널, 8/30)</p>
	A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B,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재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DB는 최근 발간한 <a href="#">보고서</a>를 통해, 국가기후재원조성 모델이 될 수 있는 Green Finance Catalyzing Facility (GFCF)의 컨셉과 목적을 소개하고, 다양한 재원모델 및 환경적 성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 등이 아태지역 투자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국가별 녹색성장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li> </ul> </li> </ul>

### 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국내	정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2017.0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각종 입지 규제 완화, 주민의 주주 참여 및 수익 배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계획</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중앙일보 8/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8월부터 친환경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시행 (2017.0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은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시행</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환경일보 8/25)</p>
국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태국간 2차 JCM 공동위 개최 및 접수 방법론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08.23 태국 방콕에서는 일본-태국간 2차 JCM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어 양국간 상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1) 태양광시스템 설치 방법론 (TH_AM001)과 2) 다계층적 oil-free 공기압축기 도입을 통한 에너</li> </ul> </li> </ul>

		<p>지 절감 방법론(TH_AM002)의 승인을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승인에는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LRQA)사와 Bureau Veritas Certification Holding SAS사가 제3자 검증기구로 참여</li> </ul> <p style="text-align: right;">(JCM웹사이트, 8/23)</p> <p>○ 일본-몽골 JCM 공동위원회 제 3자 검증기구 추가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08.28 일본-몽골간 JCM 공동위는 1) 재생에너지 및 일반 에너지 산업 분야, 2) 에너지 분배, 3)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제3자 검증기구를 추가로 승인</li> </ul> <p style="text-align: right;">(JCM웹사이트, 8/28)</p> <p>○ 일본 환경성, 2017년도 2차 JCM 재정지원 과제 공모 일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08.04 일본 환경성은 2017년도 2차 JCM 재정지원과제 공고 계획을 발표</li> <li>- 일본과 JCM 협정을 체결한 17개 개도국에서 CO<sub>2</sub> 감축 사업을 추진할 일본과 해당국 기관 컨소시엄(일본 기관 주관)은 환경성에 '17.09.04-'17.12.01 기간 사업계획서를 접수</li> <li>- 환경성은 해당국에 이미 유사한 방법론으로 JCM 사업이 실시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비중을 줄임으로써 최대한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을 지원하고 있음 (유사 사업 0개시 전체 설비비의 50%까지 지원, 유사 사업 1-3개시 40%까지 지원, 유사사업 3개 이상시 30%까지 지원)</li> </ul> <p style="text-align: right;">(GEC웹사이트, 8/4)</p>
미국		<p>○ 미국, 파리협약 탈퇴에도 기업들은 협약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킹고 총장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이 아닌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들도 파리협약을 통한 감축분 보고를 통해 투명성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역설</li> </ul> <p style="text-align: right;">(매일경제, 9/1)</p>
독일		<p>○ 독일, 2020년까지 CER, 공급 당초 예상보다 낮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연방환경청에서 지원하고 New Climate Institute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17.8 발표)에 따르면, 2013-2020년 CDM 하에서 승인된 CER 규모가 4.7 billion CERs*에 달할 것이나, 이중 4%만이 CER 승인이 확실시 되는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이고, 82%는 CER 승인여부가 확실치 않은 '취약' 사업으로 평가</li> </ul> <p>*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면 기존 2013-2020년 등록된 CDM 사업의 감축 잠재력 및 발행 가능 CER 규모를 예측한 연구에서 풍력과 수력 발전이 최대 감축잠재력을 가졌다고 밝히며, 전체 CO<sub>2</sub> 저감 사업 중 61%가</li> </ul>

		<p>CER 승인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 (총 7.7 GtCO<sub>2</sub>e 추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 이번 New Climate Institute의 연구 결과는, 기존 사업 계획단계에서 예측한 CER 공급량 보다 훨씬 못미치는 규모의 CER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New Climate Institute, 8/10)</p>
	국제	<p>○ CDM 배출권 자발적 취소 건수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8월 UNEP DTU의 집계에 따르면 '17.7까지 승인된 전체 사업 수는 3,076개로, 승인된 CDM 크레딧은 총 1,848 MCERs에 육박, 이는 6월 달에 비해 7 MCERs 상승한 수준</li> <li>- 기승인된 CERs에 대한 자발적 취소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5 MCERs에 달하는데, 이중 대한민국에서 취소한 CERs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13.3 MCERs에 달함</li> <li>-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CO<sub>2</sub> 톤당 배출권 가격이 2만원에 육박.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CDM 배출권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국내 배출권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국내 거래를 허용</li> <li>- 현재 국제 CERs 가격이 0.2cent/톤 인데 반해 대한민국 국내 시장에 형성된 톤당 배출권 가격이 훨씬 높아서, 국내 기업들은 CDM하에 등록된 CERs를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국내 배출권 시장에 등록하는 전략을 추진 중</li> </ul> <p style="text-align: right;">(UNEP DTU, 8/1)</p>

## 2 주요 통계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7.8.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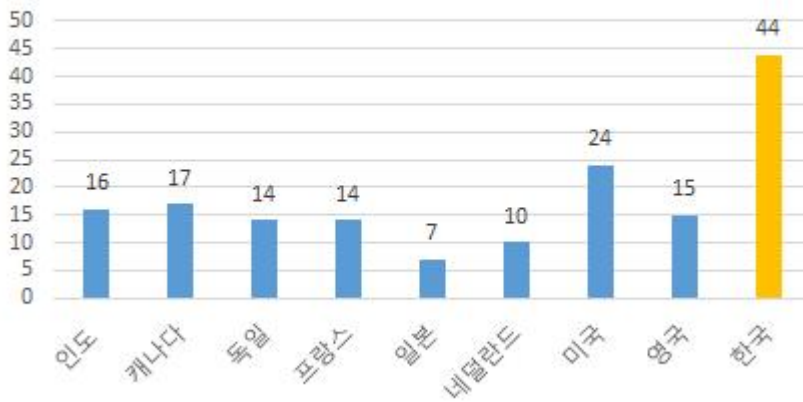
- 197개 당사국 중 160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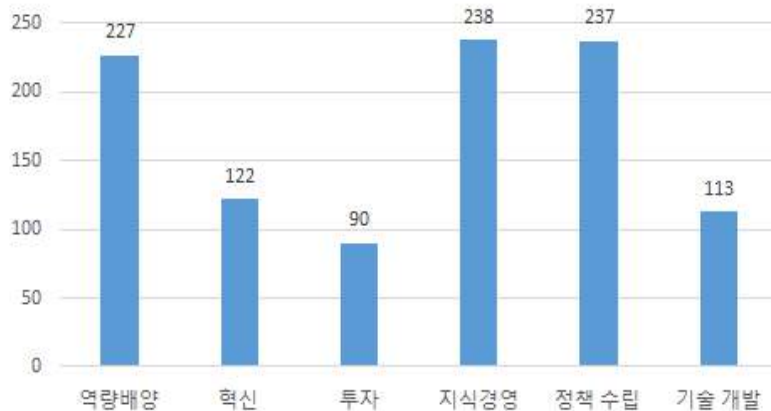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7.9.1. 현재)

- 총 350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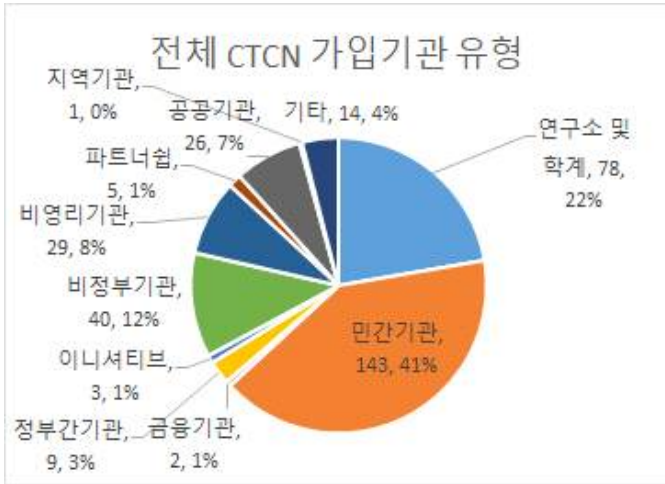
각 국별 가입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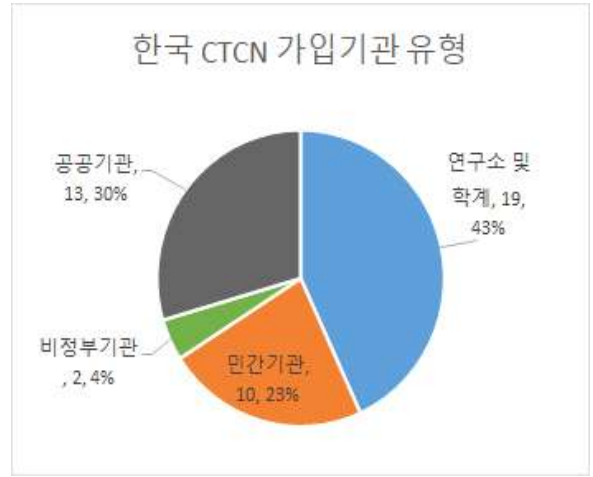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7.9.1. 현재)



<CTCN 전체 350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4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350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43건으로 4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78건(22%),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0건(12%), 29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4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19건(43%)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3건(30%)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7.9.1. 현재)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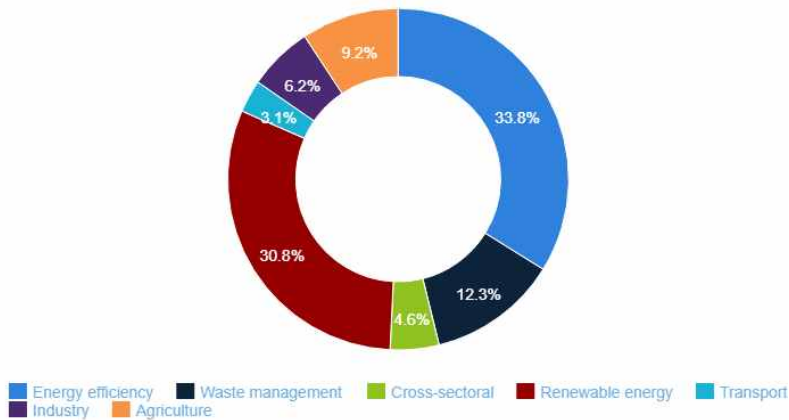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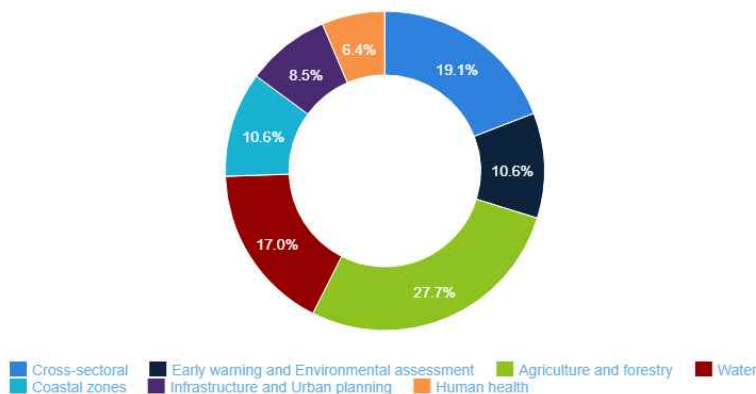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SLG Co.,Ltd.)	N0356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8.18 현재)

- 제출된 TA : 193개
- Active TA : 104개 (감축관련 TA-44.7%, 적응관련 TA-29.3%)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